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1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컬럼 :

100년의 야구사에 담긴 연안부두 승전보



인터뷰 :

SK 와이번스 정봉규 운영팀장과의 인터뷰



I/D/I/소/식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13일 기타큐슈시립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환경을 배...

행/사/정/보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심포지움] '건국60년 한국여성의 삶의 변화' 심포지움(11.3):한...

Zoom INcheon



11월의 인천역사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인 강화고인돌유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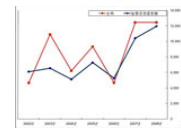
발해만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천진동장보세항구
천진동장보세항구는 반해신구의 개발/개방의 중요한 랜드마크로서 2005년...

IDI연구



인천지역 여성단체 현황과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을 조사하고, 여성단...

인천지표



인천야구의 현황 관련 지표
문학구장의 경우, 작년 대비 관중수가 139,113명에서 207,199명...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1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100년의 야구사에 담긴 연안부두 승전보

김지환 인천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김트리오의 연안부두가 불리기 시작하지 올해로 딱 30년이다.

프로야구 출범과 동시에 응원가로 불렸던 연안부두는 2008년 가을, SK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2년 연속 우승을 자축하는 자리에서도 울려 퍼졌다.

한국야구의 최정점에 오른 인천야구. 구도(球都) 인천의 저력이 이처럼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한국야구 100년사를 함께해온 인천야구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야구의 정설은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가 인천 한성기독교청년회(YMCA) 원생들에게 지도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인고백년사'에 따르면 앞서 6년 전인 1889년 인천고의 전신인 인천영어아학교에서 이미 야구경기가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식 야구경기로 펼쳐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국야구의 도입이 인천을 통해 이뤄진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야구 등 근대스포츠가 인천을 통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인천이 다양한 동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야구도 인천에서 그 시작을 알리게 됐다. 이후 1910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긴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인천의 야구발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됐다. 항일 청년운동단체들이 생기면서 인천에서도 1920년 한용단(漢勇團)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다. 밖으로는 순수 한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인천 야구팀이지만 내부적으로 항일운동에 대한 의지가 숨겨있었다. 특히 인천 공설운동장 역할을 해왔던 윗터골에서 열리는 일본팀과의 대결은 갖 쓴 할아버지와 젖먹이 아이를 등에 짊어진 아낙네까지 구경 올 만큼 한국인들의 자존심 걸린 중요한 승부였다. 곧잘 일본팀을 꺾으며 한국인들의 용기를 불어넣었던 한용단은 그러나 1924년 일본팀 미신(米信, 일본미두거래소팀)과의 결승전에서 편파판정으로 불거진 관중들의 심판폭행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결국 2년 뒤 자취를 감춘다. 일본은 이 사건으로 인천에 야구금지령까지 내리며 인천시민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을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인천은 야구를 통한 항일정신을 키우며 야구발전을 이어온다. 이 시기 윗터골은 인천 야구의 중심을 이룬 중요한 공간으로 떠오른다. 전인천야구대회를 비롯해 인천추계야구전, 인천야구추계대회, 인천춘계야구대회, 인천추기야구대회 등 각종 야구대회가 열리면서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중 하나가 된다.

한용단의 뒤를 이어 인천 조선인 팀 고려야구단도 그 맥을 같이한다. 또 일본팀은 물론 미국 야구팀도 인천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한국야구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게 된다. 전국적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때 학원야구도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맞는다. 학원야구는 전인천소년야구대회 등 인천지역 소년 야구선수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야구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여나갔다.

한국 야구의 초시를 알린 인천영어아학교를 비롯해 인천상업전수학교, 인천남상업학교, 인천상업학교, 인천공립보통학교, 영화보통학교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천 야구저변이 확대 됐다. 오늘날 그 맥락은 인천고, 동산고, 계림포고가 짊어지고 있다.

광복 이후 파폐한 생활 속에서도 인천은 야구로 새로운 희망을 쏘 나갔다. 광복후 만들어진 성인 야구팀 전인천팀이 전국대회를 석권하면서 인천야구의 자존심을 지켰고 인천고, 동산고가 청룡기 5연패를 기록하며 인천야구의 실력을 전국적으로 과시했다. 광복 직후 인천야구의 재건은 인천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과의 친선경기를 통해 이뤄진다. 밥 굶지 않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 인천은 실밥이 터진 공을 꿰매고 부러진 나무배트에 못을 박아가며 4대도시 대항 야구대회서 3전 전패의 대기록을 남긴다. 이때 후보 선수들은 미군경기가 열리기만 하면 담장을 넘어 볼과 글러브를 훔쳐 야구도구를 준비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미군들과의 경기로 한층 성장한 인천야구는 본격적으로 학원야구 육성에 열을 올린다. 김선웅이 인천고 야구부를 맡아 집중 육성했고 박현덕이 동산고 감독을 맡아 지도하면서 전성기를 예고했다. 전쟁이후 야구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체육이 인천체육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서서히 진화해 나갔다.

고교야구의 부흥이 정점을 이루던 시절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5공화국 시절,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야구가 도입되면서 야구도시 인천 역시 마지막 차로 합류하게 된다. 당시 프로야구 출범은 부산의 롯데, 서울의 MBC, 대구의 삼성, 대전·인천의 두산, 광주해태 등 5개 팀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인천을 연고지로 한 프로팀 삼미슈퍼스타즈가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적극적으로 출범하면서 제2의 인천야구사를 꿈꾸게 됐다. 주로 인천고와 동산고 출신으로 팀을 꾸린 삼미슈퍼스타즈는 국가대표 선수 단 한명 없이 만년 꼴찌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다. 재일동포 투수 장명부와 타자 이영구를 영입하면서 1983년 2위라는 최고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1985년 18연패 뒤 결국 청보식품에 매각되면서 인천은 청보핀토스로 새 이름을 달게 된다. 당시 청보는 MBC야구 해설위원인 허구연을 감독으로 영입하고 재기를 꿈꿨지만 1986년 연패를 거듭하며 꼴찌를 면치 못하면서 다시 태평양화학에 매각되는 아픔을 맞는다.

구단을 인수한 태평양화학은 태평양돌핀스라는 이름으로 9년 동안 인천연고로 활약했지만 8개 구단 중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하고 1997년 현대에 매각됐다. 현대는 김재박 감독을 영입해 1998년 팀 창설 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인천 야구팬들을 흥분시켰지만 2000년 SK 팀 창단의 틈을 이용해 연고지 인천을 SK에 떠넘기고 수원으로 팀을 옮겨가면서 인천시민들에게 큰 아픔을 남겼다. 인천야구 팬들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마지막 SK의 선전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2001년 7위를 시작으로 2002년 6위 등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엔 결국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 영입 후 꿈에 그리던 한국시리즈 우승 영광을 안았다. 김성근 감독 특유의 지옥훈련을 견뎌낸 SK 선수들은 이듬해인 2008년 또 다시 한국시리즈에서 두산을 만나 4승1패의 기록으로 2년 연속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100년을 넘긴 한국야구사의 맥을 함께 해온 인천. 항일정신을 키우도록 시민들을 단결시킨 것은 물론 나라 잃은 슬픔까지 달래주었던 야구는 이제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을 지나 2008년 가을, 야구는 인천 시민들에게 또 한번 감동의 선물을 선사했다. 구도인천으로 통할 만큼 야구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인천의 야구사는 앞으로 200년, 300년을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문학구장을 뜨겁게 달궜던 인천 야구팬들의 열기 또한 연안부두로 옮겨퍼질 승전가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한성YMCA와 한성학교의 1910년 2월26일 경기모습. 포수는 YMCA의 허성, 타자는 한성학교 이영복, 심판은 한성학교의 다카하시 교사.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야구경기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을 넘긴 한국야구사의 맥을 함께 해온 인천. 항일정신을 키우도록 시민들을 단결시킨 것은 물론 나라 잃은 슬픔까지 달래주었던 야구는 이제 인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을 지나 2008년 가을, 야구는 인천 시민들에게 또 한번 감동의 선물을 선사했다. 구도인천으로 통할 만큼 야구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인천의 야구사는 앞으로 200년, 300년을 이어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문학구장을 뜨겁게 달궜던 인천 야구팬들의 열기 또한 연안부두로 옮겨퍼질 승전가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인천야구, 진정한 구도의 명성을 찾다

SK와이번스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인천 야구의 승리인 것이다. 여기에는 SK와이번스의 선수, 감독 못지 않게 함께 땀 흘리며 달려온 구단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또한 인천 야구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1월 '아프리에'에서는 인천 야구 역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 진정한 구도 인천에서 오로지 인천 야구만을 위해 일해 온 SK 와이번스 운영팀 정봉규 팀장의 19년, 외길 야구 인생을 들여다보았다.



정봉규
(SK와이번스 운영팀장)

정봉규 팀장의 고향은 전북 장수다. 인천은 제2의 고향인 셈이다. 정 팀장의 야구와의 인연은 어린시절, 열혈 해태 타이거즈의 팬인 아버지를 따라 야구를 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해태가 경기를 지는 날에는 밥을 먹기도 싫고, 나름대로 패인을 분석해가며 분개했다. 그렇게 키워난 야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결국 1990년 태평양 돌핀스에서 근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인천에서 녹을 받아 먹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열광하던 해태 타이거즈의 빨간 유니폼이 알미워지더라구요." 그 당시 해태는 선동열, 이강철 선수 등 막강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고, 태평양 돌핀스는 하위권을 맴돌았다. 그러다 태평양 돌핀스는 현대 유니콘스로 팀명이 바뀌게 되고, 그 과정에 조직내의 갈등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99년에는 구단을 떠나려는 마음까지 먹었다. 하지만 IMF 절정기인 현실과, 아들이 현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무엇보다 야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대가 야구를 떠나지 않게 해주었다.

그런데 현대 유니콘스가 '탈인천'하고 수원으로 연고를 옮기게 되었다. 정 팀장은 다시 생겨난 인천 야구단에 지역사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력서를 냈고 구단에서 정 팀장을 불러주었다. 그러면서 정팀장은 '필연적으로 인천과 인연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인천에 연고를 둔 구단에서 일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인천이란 도시의 정체성 문제가 그러했다. 인천은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고, 특히 한화팬과 기아팬이 많다. 따라서 이주민 1세대는 SK 와이번스를 응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주민 2세대부터 점차 정체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응원할 때도 '최강 SK', '막강 SK' 보다 '인천 SK'를 내세웠다. 또한, 정봉규 팀장은 문학 야구장 건립에 관심을 갖고 일조 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다른 구장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지만 보다 좋은 여건을 위해 더 많은 계획을 구상중이다. 연인석, 가족석, 익사이팅석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익사이팅석은 그물망 바로 뒤쪽에 앉아서 선수들이 몸을 풀거나 할 때 악수도 나누고 사인도 받게 하는 등 선수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 확실히 팬심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파울 타구 등 다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자리에 헬멧도 비치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쓰고 넓은 팬층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문학구장이기에 인프라 확충에 힘쓴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 홈구장 승률이 5할을 넘으니 욕심을 내도 될만하지 않을까.

정봉규 팀장이 구단에 몸 담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 꼽는 기억은 공교롭게도(?) 현대 유니콘스와 맞붙게 된 2003년 한국시리즈다. 인천 시민들은 몇 번의 팀명이 바뀌는 아픔을 경험한 터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팀이라는 생각에 정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게다가 인천 출신의 김수경, 박진만, 정민태 선수 등이 수원에서 뛰게 되면서 팬들의 정신적 공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무튼 결과는 4승 3패, 현대의 승리로 돌아가 한국시리즈 우승 후보직전에서 물러난 것이 뼈 아르게 남아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유니콘스는 그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SK 와이번스는 위풍당당하게 2007, 2008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정 팀장은 힘든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번도 우승을 놓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정 팀장은 선수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SK 와이번스 선수들이 특별히 목적의식이나 사명감이 뚜렷하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감독님이 현실과 타협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 재일교포인 감독님은 변방에 계셨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쩔 그래서 야구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사시는지도 모르죠.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시고 나이를 잊은 대단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려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떠한 결정도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WBC 감독 건을 두고 말이 많은 때라 정 팀장은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그런 정 팀장도 김성근 감독과 닮아있었다. "경기는 싸워서 겨워서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경기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승부를 펼쳐도 지는 경기는 맥이 빠지잖아요." SK 야구는 재미없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명쾌한 답변이다.

정봉규 팀장은 도시 재개발사업 명목하에 인천 야구의 보금자리인 송의야구장이 사라지는 것을 가슴 아파한다. 허물기는 쉽지만 기록되어지고 상징적인 부분은 역사에 남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팀장은 그래서 인천에 야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KBO에서 2010년 고척동에 야구박물관을 지을 예정에 있지만, 최고, 최대보다는 최초라는 데 의미가 더 크듯이 야구의 효시인 인천에서 건립하는 것이 정통성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과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부터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아 보인다. 정 팀장은 또한 장기적으로는 리틀 구장을 만들어 프로구단과 지사체가 클럽식으로 팀별 리그 경기를 치르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정당한 스포츠맨십에도, 선수 개개인의 장래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봉규 팀장은 또 돛구장에 대한 견해도 조금 다르다. "정말 아슬아슬했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두산 홍성흔 선수의 타구를 받아낸 조동화 선수의 플레이는 인조잔디였다면 불가능 했을 일이에요. 화상 위험도 크죠." 돛구장은 겨울에도 야구할 수 있고, 우천시에 경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야구의 진정한 모미는 천연 잔디에서 뛰면서 뜨거운 피약별 아래서도, 비 내리는 중에도 파란 하늘을 보면서 경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팀장은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이 보여준 야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야구는 사회성이 강한 스포츠며 건강한 마약이라고 말하고, 나날이 좋아질 문학구장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겨달라고 덧붙였다. SK 와이번스가 스포테인먼트를 표방하듯 프로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팬들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정봉규 팀장은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정의한다. 홈을 지나 1, 2, 3루를 돌아 다시 홈을 밟는 과정이 집을 나서서 안전하게 다시 귀가하는 과정, 우리네 인생과 닮아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일할 수 있는 순간까지 인천 야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정 팀장의 당당한 목소리에서 SK 와이번스의 'Fan First'를 지향하는 '팬들의 생각대로 V3'는 무난히 이어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SK와이번스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인천 야구의 승리인 것이다. 여기에는 SK와이번스의 선수, 감독 못지 않게 함께 땀 흘리며 달려온 구단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도 인천 야구 승리의 견인차가 되었을 것. 그래서 11월 '아프리에'에서는 인천 야구 역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진정한 구도 인천에서 오로지 인천 야구만을 위해 일해 온 SK와이번스 운영팀 정봉규 팀장의 19년, 외길 야구 인생을 들여다보았다.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지난호 보기

2008년 11월 호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우리 연구원은 지난 13일 기타큐슈시립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환경을 배려한 도시만들기'를 주제로 기타큐슈시립대학과 공동연구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에코타운과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기관 확충을 위해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준비현황" 관련 특강



인천시 현안과제 중 하나인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공유하고자 지난 19일 우리 연구원 대강당에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준비현황" 관련 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방종설 도시환경본부장이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라는 영상자료와 더불어 축전 관련 행사 프로그램 및 세부 시설 배치계획, 조감도 등 구체적인 준비현황을 설명했다. 방 본부장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3일 기타큐슈시립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환경을 배려한 도시만들기'를 주제로 기타큐슈시립대학과 공동연구발표회를 가졌다.

다양한 현안과제에 관한 행사정보

[심포지움] '건국60년 한국여성의 삶의 변화' 심포지움(11.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심포지움] '건국60년 한국여성의 삶의 변화' 심포지움(11.3):한국여성정책연구원 02-3156-7000

*[행사] 한중토지정책연구 공동국제워크숍(11.3):국토연구원

*[심포지움] 2008 국토해양 R&D 국제심포지움(11.6):국토해양부

*[심포지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전략과 과제' 심포지움(11.6):STEPI 02-3284-1820

*[토론회] 물류산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11.7):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포럼]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정 포럼(11.11):한국노동연구원 02-782-0141

*[행사] '제3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컨퍼런스(11.12):지식경제부 02-3299-3114

*[포럼]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 글로벌 포럼(11.13):한국정보사회진흥원

*[콜로키움] '지역간 대중교통 진단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콜로키움(11.14):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토론회] 인천국제공항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 공개토론회(11.18):한국교통연구원 031-910-3114

*[토론회] '수변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전문가 토론회(11.20):서울시정개발연구원 02-538-4596~7

*[포럼]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11.28):경기개발연구원

11월의 인천역사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 유산인 강화고인돌유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의 지역에 고려산 기슭을 따라 12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 1900년 11월 12일-경인선 전구간 개통

▶ 경인선은 근대적 교통기관의 도입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본은 인천과 노량진 간의 개통에 이어 노량진과 서울역 공사를 서둘러 1900년 11월 12일에 경인선의 전구간을 개통시켰다. 이후 경인선은 1965년 9월 18일 복선화에 이어 1974년 8월 15일 전철화가 이뤄졌다.

* 1902년 11월 12일-100여명의 하와이 이민 인천항 출항

* 1918년 11월 13일-영국함 소형선 월미도 해상침몰 48명 익사

* 1918년 11월 4일-담동성당 축성식

▶ 인천시 중구 담동에 위치한 담동성당은 경인지역 가톨릭의 모교회 격으로 인천 개항에 이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4.19혁명 등 격동의 역사와 인천의 발전과정을 함께 한 유서깊은 성당이다.

* 1921년 11월 1일-인천공립도서관 설립

* 1955년 11월 15일-배다리 철교 개통

* 1960년 11월 28일-중앙시장 대화재

* 1981년 11월 20일-송현3동 재개발사업 착공

* 1982년 11월 22일-송의동 인천문화회관 개관

* 1983년 11월 2일-구월동 인천시청사 착공

* 1984년 11월 19일-한국기독교선교백주년기념탑 기공

* 1984년 11월 6일-영종-용유 연육도 기공

* 1990년 11월 20일-송암미술관 기공

* 1991년 11월 20일-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준공

* 1994년 11월 30일-인천종합터미널 기공

* 1997년 11월 12일-인천항, 천진항과 자매결연

* 1997년 11월 6일-인천 약취예고제 전국 첫시행

* 1998년 11월 10일-강화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 1998년 11월 14일-영종-용유 연육도로 개통

* 1998년 11월 25일-인천발전연구원 21세기 강화발전세미나

* 1999년 11월 25일-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 1999년 11월 2일-조봉암 탄신100주년 기념 강연회

▶ 비운의 진보 정치가 죽산 조봉암 선생을 기리는 운동의 일환으로 역을하게 정치적 누명을 쓰고 생을 마감한 그의 삶과 정치 역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봉암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강연회'가 강화에서 개최됐고, 그해 12월 그의 지인과 후배, 각계 인사 등으로 '죽산 조봉암선생 추모사업회'(회장 유진국.89)가 결성됐다.

* 2000년 11월 29일-강화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록

▶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 유산인 강화고인돌유적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등의 지역에 고려산 기슭을 따라 120여 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는 길이 7.1m, 높이 2.6m의 우리나라 최대의 북방식 고인돌이 있으며 우리나라 고인돌의 평균고도보다 높은 해발 100m-200m까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 2001년 11월 30일-인천교통방송국 개국

****위의 내용은 인천일보사 발행 [인천연감] 인천사연표에서 부분 발췌수록한 것임

11月

발해만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천진동장보세항구

천진동장보세항구는 빈해신구의 개발·개방의 중요한 랜드마크로서 2005년 국가의 비준을 받고 설립되었으며 중국 북방의 국제해운센터와 국제물류센터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항구이다. 동장항구는 천진항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계획면적이 30km²이며 국제환적, 국제배송, 국제조달, 국제중계무역, 수출가공 등 5대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장보세항구는 발해만경제권의 중심에 자리잡고 유라시아대륙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해운과 육운의 접점이면서 풍부한 내륙자원을 갖고 있다. 동장보세항구를 중심으로 500km 반경의 범위에 수도 북경과 북방경제중심인 천진을 포함한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11개 대도시가 분포되어 있고 전국인구의 17%를 차지한다.



천진동장보세항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의 기능과 정책을 일체화 한 세수, 항구 감독관리, 외화관리 등 면에서 국가의 12항목의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빈해신구의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15% 소득세 세율 및 기타 하이테크 산업과 하이테크 인재 관련 우대정책을 제공하며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설립한 연구소, 가공제조센터, 구매조달센터, 판매배송센터와 종합산업체인, 공급체인을 형성한 프로젝트는 더욱 많은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천진동장보세항구는 정부의 서비스관리모형을 혁신하고 항구 감독관리, 행정관리, 기업운영에 있어서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발구의 행정심사는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집중 심사비준하며 지정된 시간내에 심사를 완성하고 추적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신용체계를 구축하고 구내 공공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동장보세항구에서 無紙통관, 온라인통관을 실현하고 있다.

▼ 천진동장보세항구 전경



인천지역 여성단체 현황과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을 조사하고, 여성단체가 여성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연구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28개의 여성단체를 설립과정, 이념, 회원규모, 주요활동 등을 조사하고, 여성정책의 입안, 실행과정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을 조사함.

연구결과

1. 인천지역 여성단체 현황과 주요 활동

○ 인천시에 등록된 여성단체들은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인천여성연대> 소속 단체들로 대별될 수 있음.

○ 21개의 인천여협 소속단체들은 규모면이나 설립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영향력있는 지역여성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음.

○ 인천여성연대 소속 6개 단체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서야 생겨난 단체들이지만, 기존의 여성단체가 제기하지 않았던 성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현재 이들 단체들은 재정마련 및 새로운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해결이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임.

2. 여성정책과정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

○ 여성단체들은 정책의제 개발자와 여성정책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여성정책의 수립 및 이해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

○ 토론회의 개최나 성명서 발표 등을 여성정책을 비판하고 보육, 정책의제 개발자로서의 역할은 통해 정책입안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수행됨

○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여성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는 공익사업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기초는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음.

○ 그러나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의 업무처리방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행정적 업무처리방식을 요구한다든가, 관련담당자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으려 한다는 점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음.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지속적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정책적 시사점

○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은 기금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이런 지원이 단체의 정체성 및 단체의 고유활동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이런 평가를 고려하여,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단체 고유의 활동영역에 부합하고, 그 영역에서 활동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

○ 또한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단체의 역량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공간지원 등과 같이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 정책담당자와 여성단체들간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공무자-활동가-연구자로 이루어진 정책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상호간의 신뢰의 형성이 상호협력적 관계의 토대라면, 이런 신뢰관계는 지속적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넓혀갈 때만 가능하고, 이는 다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임.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여성단체들의 현황과 활동을 조사하고, 여성단체가 여성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연구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등록된 28개의 여성단체를 설립과정, 이념, 회원규모, 주요활동 등을 조사하고, 여성정책의 입안, 실행과정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을 조사함.

교통신호시스템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0년 말까지 시설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과 수요 관리 위주의 교통정책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통시설 공급 및 수요 관리 위주의 교통정책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알고 2000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교통정책 외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운영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도 교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1년에 인천광역시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ITS사업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교통정보사업 및 BIS/BMS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TS사업 중에 교통정보사업 및 BIS/BMS사업을 수동적인 교통운영 효율화 사업이라 한다면, 신호를 최적화하여 도로용량을 증가시키는 신호사업은 능동적인 교통운영 효율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들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교통운영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지만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교통신호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는 2007년 현재 1098기의 교통신호제어기 중 93% 이상의 교통신호제어기가 센터와 연결된 전자교통신호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중·장기 교통관리 전략이 부재하여, 단순히 민원에 대응하는 교통신호운영에 급급한 실정이다. 시는 지금까지 전자교통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확장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고 시스템 설치 이후의 운영 및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투입이 부족하여 교통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이유로 교통신호시스템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호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책건의

1. 신호업무 단일화

인천광역시는 신호업무를 경찰청이 운영을 담당하고 시는 예산을 지원한다. 경찰청과 시는 협조체계 아래 교통신호 운영관리 업무를 계획 및 추진하나, 이원화 업무체계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와 제주도의 경우처럼 교통신호운영의 일괄된 예산집행과 운영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을 통합관리하거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신호업무의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문인력 확보

인천광역시 신호업무는 전문분야와는 상관없이 경찰청 및 시청에서 교통센터로 파견된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유지관리 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에 익숙할 즈음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분야 중에서도 가장 전문분야인 신호전문인력의 확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처럼 교통공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교통전문직으로 확보하든지, 신호운영을 단계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원이나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운영 매뉴얼 개발

교통신호 운영관리 실무업무를 지원하는 운영 매뉴얼은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나 운영 매뉴얼 없이는 담당자들의 판단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표준화, 문서화,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 개인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신호운영 담당자가 참고하는 지침서는 교통안전실무편람과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2종뿐이다. 신호제어군 선정, 독립교차로 최적현시조합, 연동화 등에 관한 운영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4. 교통신호 운영관리계획의 규제화

교통신호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통신호제어전략, 교통신호운영전략, 교통신호운영변수 설계, 유지·보수·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등록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업무를 집행,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교통신호 운영관리계획의 규제화 작업이 요구된다.

5. 신호운영개선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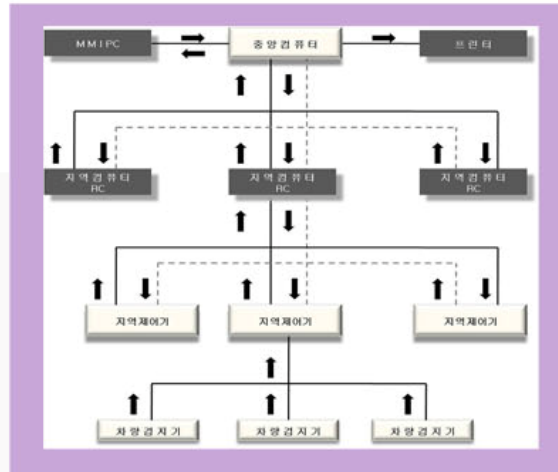
신호업무 일원화가 될 때까지 또는 일원화가 되더라도 신호운영 효율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신호운영 효율화 발전방향으로 제시된 교차로구의 서정 및 부리/결함 신호여도화 개선 주요교차로

과포화전략 개발, 좌회전감응시스템, 실시간교통신호시스템 시범운영, 신호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좌회전 신호규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전문직으로 구성된 신호운영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6. 도로공사구간 교통처리 대책

2007년도에는 시 전역에서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도로공사구간 전후의 차로제한에 따른 편의적인 현시방법 변경과 이에 따른 주기상승으로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였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지하철2호선 등의 공사로 인한 도로공사구간의 교통혼잡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신호운영을 포함한 체계적인 도로공사구간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그림〉 인천광역시 교통신호시스템 구성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0년 말까지 시설 공급 위주의 교통정책과 수요 관리 위주의 교통정책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통시설 공급 및 수요 관리 위주의 교통정책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을 알고 2000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교통정책 외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운영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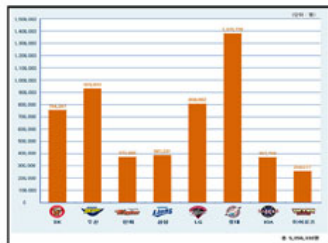
인천 야구의 현황 관련 지표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과 WBC의 패주,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2년 연속 우승에 힘입어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야구의 본고장인 인천에는 초, 중, 고, 대학교 포함 총 17개의 야구부가 있다. 초등학교는 서화초, 서흥초, 서림초, 동막초, 승의초, 창영초, 축현초, 상인천초 8개교가, 중학교는 상인천중, 동인천중, 동산중, 대현중, 신흥중 5개교가, 고등학교는 인천고, 동산고, 제물포고 3개교가 있으며 대학교는 인하대 1개교가 있다.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없는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야구부를 두고 있고, 인천은 올해로 미추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6회째를 치러냈으며 인천고등학교는 전국대회 2관왕을 휩쓸었다.

2008 정규시즌 관중 동원 현황(11월 현재)



프로구단으로 눈을 돌려보면, 2008년 11월 현재 정규시즌 관중동원수는 8개 구단 중 SK 와이번스가 754,247명으로 롯데 1,379,735명, 두산 929,600명, LG 806,662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SK 와이번스의 선전으로 내년 관중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문학구장에 만원 관중을 기록한 적이 없는 만큼 구단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학구장의 경우, 작년 대비 관중수가 139,113명에서 207,199명으로 49% 증가했으며, 입장수입은 398,435,000원에서 651,999,500원으로 64% 증가했다. 이것은 SK와이번스의 우승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관중몰이에 선전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학구장 1인당 단가를 3,146원으로 볼 때 구장 수용인원인 29,778명으로 환산해보면, 만원관중을 이루었을 경우 93,681,588원의 입장 수입을 거둘 수 있어 인천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구단 관계자 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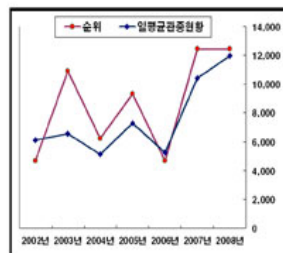
2008시즌 구장별 입장수입 현황(5월 현재)

2007					
구단	관중수	연매 (백만원)	평균연매	단매	1인당 단가
LG	21	349,429	16,639	1,914,900,000	4,335
두산	15	190,244	12,683	817,430,750	4,297
롯데	16	229,612	14,361	1,147,046,200	4,995
삼성	21	128,216	6,105	439,339,000	3,435
KIA	16	67,935	4,238	339,251,000	4,611
SK	16	139,113	8,695	398,435,000	2,664
한화	19	97,558	5,135	454,054,500	4,645
우리	17	41,719	2,454	141,338,000	3,397
합계	141	1,243,703	8,821	5,238,058,950	4,095
2008					
구단	관중수	연매 (백만원)	평균연매	단매	1인당 단가
LG	21	299,641 (-17)	13,888	1,489,997,000 (-3)	5,039
두산	15	214,036 (13)	14,269	1,341,570,300 (64)	6,267
롯데	16	377,052 (64)	23,566	2,139,856,000 (86)	5,672
삼성	21	124,762 (-9)	5,941	532,351,400 (21)	4,266
KIA	16	91,076 (34)	5,692	373,383,500 (14)	4,039
SK	16	207,199 (49)	12,950	651,999,500 (64)	3,146
한화	19	97,558 (0)	5,135	454,054,500 (3)	4,764
우리	17	80,264 (92)	4,721	391,994,000 (135)	4,136
합계	141	1,483,536 (19)	10,522	7,304,517,000 (36)	4,674

마지막으로 SK 와이번스의 연도별 순위 및 관중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 도원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던 것을 2002년부터 문학구장을 홈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시 말해, 문학구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중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구단의 성적이 좋은 팀이 관중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래 표와 그림을 통해 이러한 정비례 관계가 증명된다. SK와이번스가 2009년에도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비통승천할 수 있도록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스폰서인먼트의 활성화, 문학구장의 유지, 관리는 물론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SK 연도별 순위 및 관중현황 (2000년~2008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순위	8	7	6	2	5	3	6	1	1
입장인원(관중)	1,281	2,666	6,102	6,552	5,116	7,272	5,256	10,419	11,672
관중수	84,563	178,645	402,722	438,996	337,874	456,121	331,143	696,426	754,247
증가율	-	111.3%	125.4%	9.0%	-23.1%	35.7%	-27.7%	98.2%	14.9%



*자료 : KBO, SK와이번스, 야구협회, 시설관리공단